

오노조시 외국 국적 시민 의식조사  
보고서

2012년 9월

오노조시



#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	P 1
제 2 장 조사 결과	
제 1 절 응답자 특성 .....	P 2
제 2 절 언 어 .....	P 7
제 3 절 지역 활동 참여 .....	P 12
제 4 절 일본에서의 생활 .....	P 15
제 5 절 보건복지·의료 .....	P 17
제 6 절 재해·긴급 시 등 .....	P 19
제 7 절 육 아 .....	P 22
제 8 절 오노조시청의 지원 .....	P 25
제 3 장 향후 과제 .....	P 33

# 제 1 장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다문화 가정의 함께 하는 도시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하여, 외국 국적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생활상의 문제, 필요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함.

## 2 조사 방법

- (1) 조사대상 2012년 4월 18일 현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의 시민으로서, 체류자격 중 특별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시민
- (2) 조사방법 우편으로 조사표 배포, 회수
- (3) 조사기간 2012년 4월 25일 (수) ~ 2012년 5월 31일 (목)
- (4) 조사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중 하나의 조사표와 일본어 조사표  
\*상기 3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영어 조사표를 배포
- (5) 설문 문항 수 38 문항

## 3 회수 결과

- (1) 표본 수 428 명
- (2) 실 대상자 수 397 명\*  
\*표본 수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를 제외한 수
- (3) 회수 건 118 건
- (4) 회수율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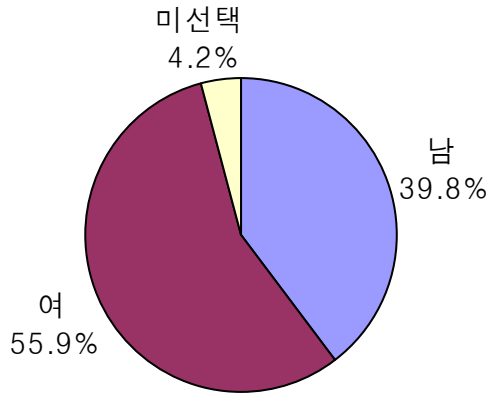
## 4 결과 표시 방법

- (1) 백분율은 응답 대상자 수를 100.0%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구성비(%)는 소수 점 아래 2 자리수를 올림하거나 버림하여 표시하였기 때문에 총합이 반드시 10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비율을 합산한 경우의 수치와 실수를 합산한 경우 비율의 수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 설문, 선택지 등의 표현은 의미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일부 생략한 경우가 있음.

## 제 2 장 조사 결과

### 제 1 절 응답자 특성

Q1 성별을 가르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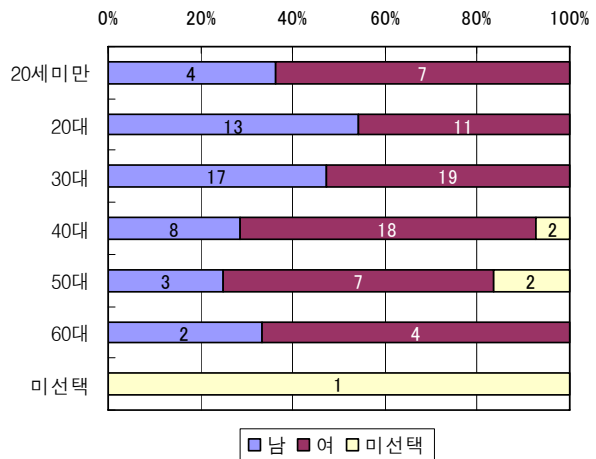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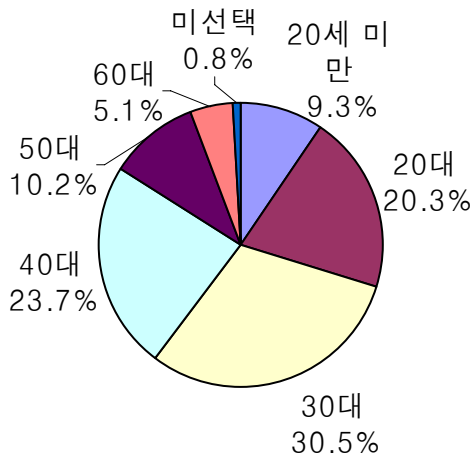


#### 【성별】

“여성” 이 55.9% (66 명) 로, “남성” 39.8%(45 명) 보다 16.1 포인트 높음.

※참고 시내 거주 특별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 (실 대상자 397 명) 의 남녀비율은 “여성” 이 54.7% (217 명), “남성” 이 45.3% (180 명)

Q2 연령을 가르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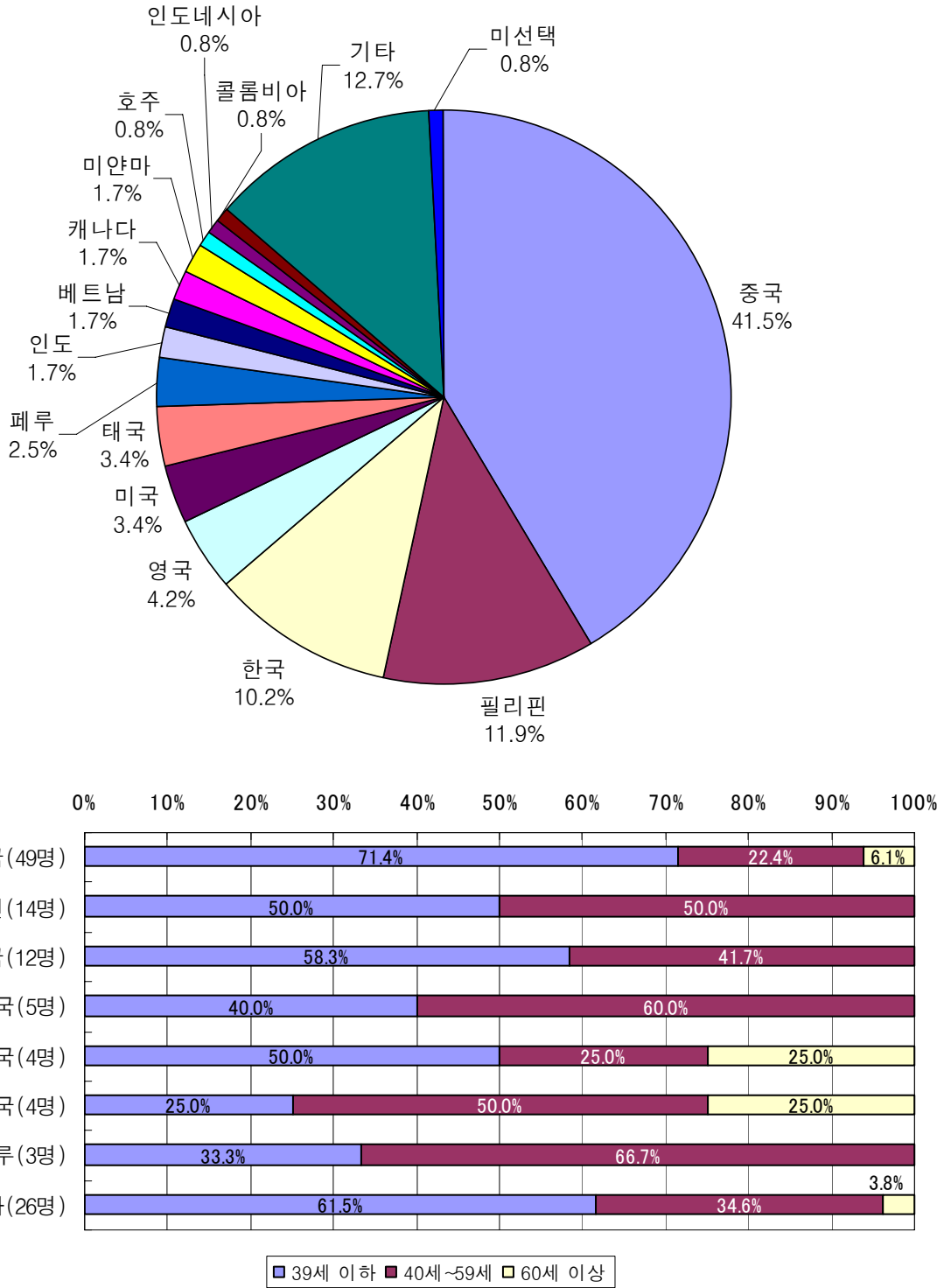


#### 【연령】

30대, 40대, 20대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며, 16~39세까지의 응답자가 전체의 60.1%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 시내 거주 특별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 (실 대상자 397 명)의 연령 비율은 “20세 미만” 이 2.3% (9 명), “20대” 가 33.8% (134 명), “30대” 가 38.0% (151 명), “40대” 가 14.9% (59 명), “50대” 가 7.8% (31 명), “60대” 가 2.8% (11 명), “70세 이상” 이 0.5% (2 명) 로, 16~39세가 전체의 74.1% (29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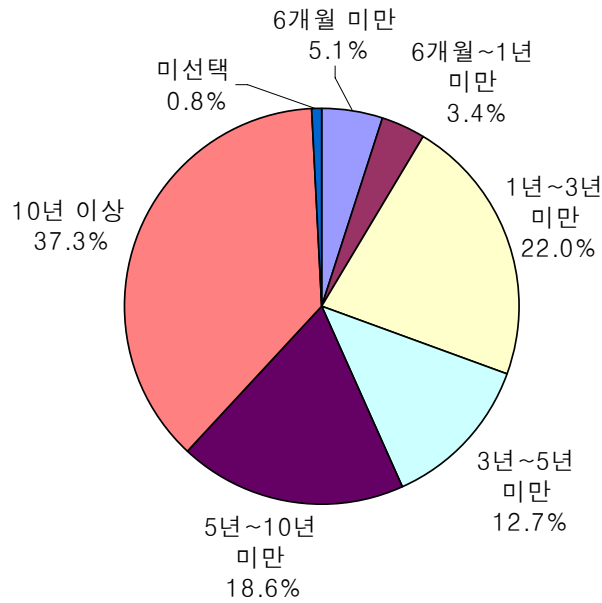
Q3 국적을 가르쳐 주세요.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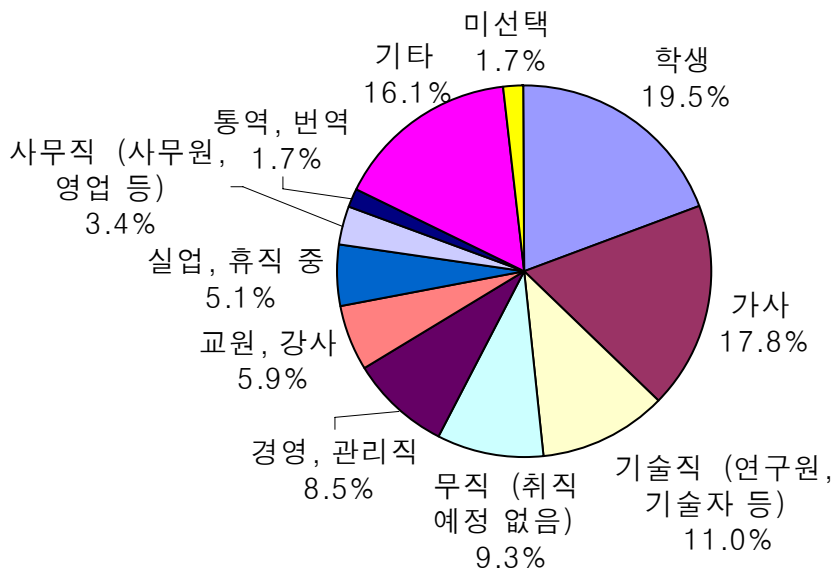
“중국” 이 41.5%, “필리핀” 이 11.9%, “한국” 이 10.2%로,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73.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중국” “필리핀” “한국” “미국” “기타” 별로 과반수 이상이 39 세 이하에 분포하고 있음.

Q4 일본에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 번 사신 분은 합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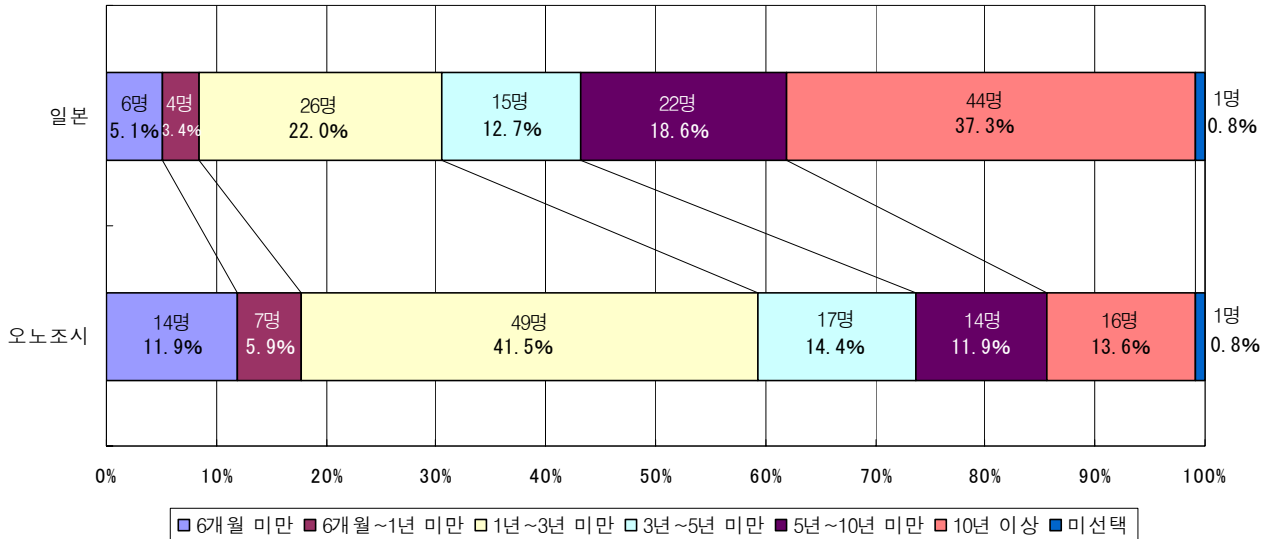
**【일본에서의 거주 년 수】**  
 일본에서의 거주 년 수 “6개월 미만” 이 5.1%, “6개월~1년 미만” 이 3.4%, “1년~3년 미만” 이 22.0%, “3년~5년 미만” 이 12.7%, “5년~10년 미만” 이 18.6%, “10년 이상” 이 37.3%임. 또한, 일본에 살기 시작한지 10년 미만의 사람이 전체의 61.8%를 차지하고 있음.

Q5 오노조시에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여러 번 사신 분은 합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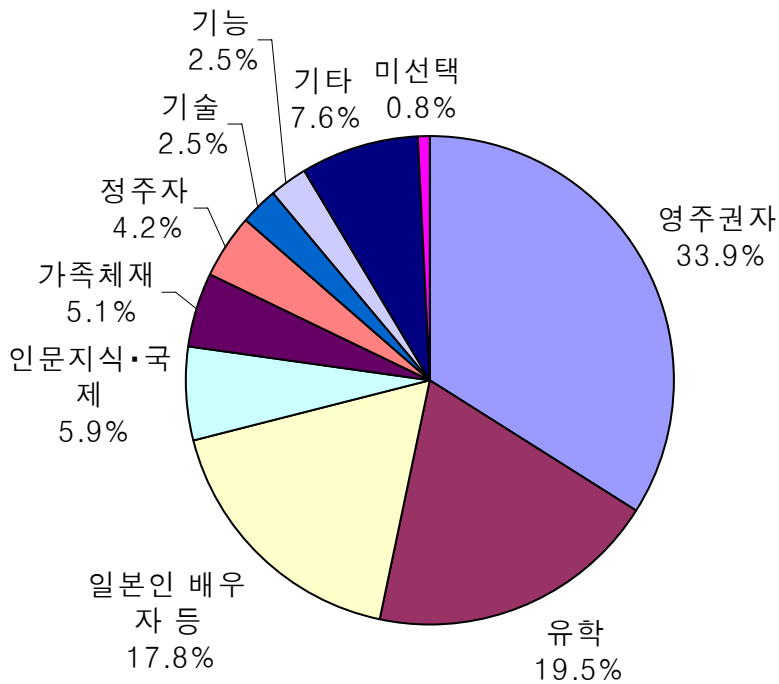
**【오노조시 거주 년 수】**  
 오노조시에서의 거주 년 수가 “6개월 미만” 이 11.9%, “6개월~1년 미만” 이 5.9%, “1년~3년 미만” 이 41.5%, “3년~5년 미만” 이 14.4%, “5년~10년 미만” 이 11.9%, “10년 이상” 이 13.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10년 미만인 사람은 전체의 85.6%임.

【일본과 오노조시의 거주 년 수 비교】



【일본과 오노조시의 거주 년 수 비교】  
 일본에서 “5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55.9%, “5 년 미만” 인 사람은 43.2%인 것에 비해, 오노조시에 “5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5%, “5 년 미만” 인 사람은 73.7%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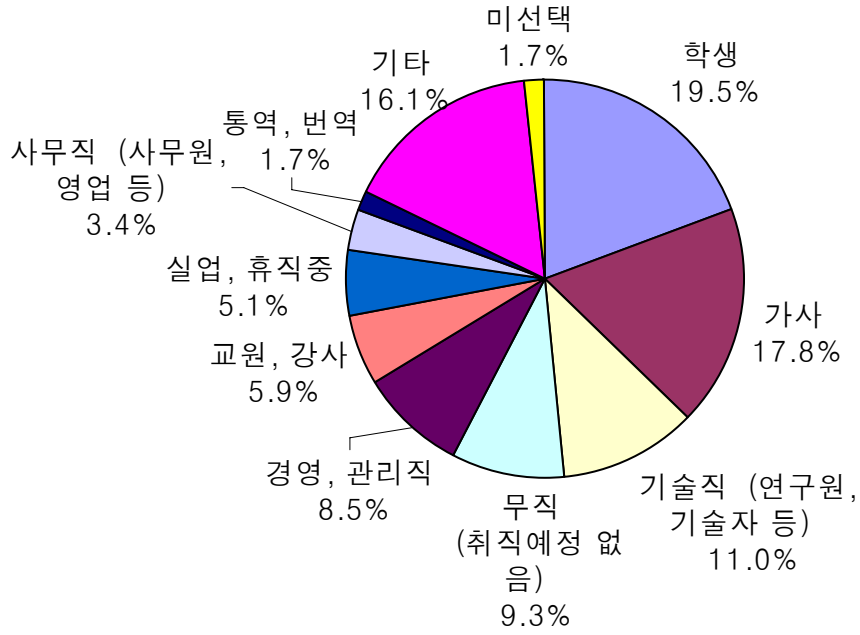
Q6 당신의 체류자격 (VISA) 을 가르쳐 주세요.



【체류자격】  
 “유학” 이 19.5%, “영주권자”,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定住者, 영구정착인)” 등 앞으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55.9%를 차지하고 있음.



Q7 직업 종류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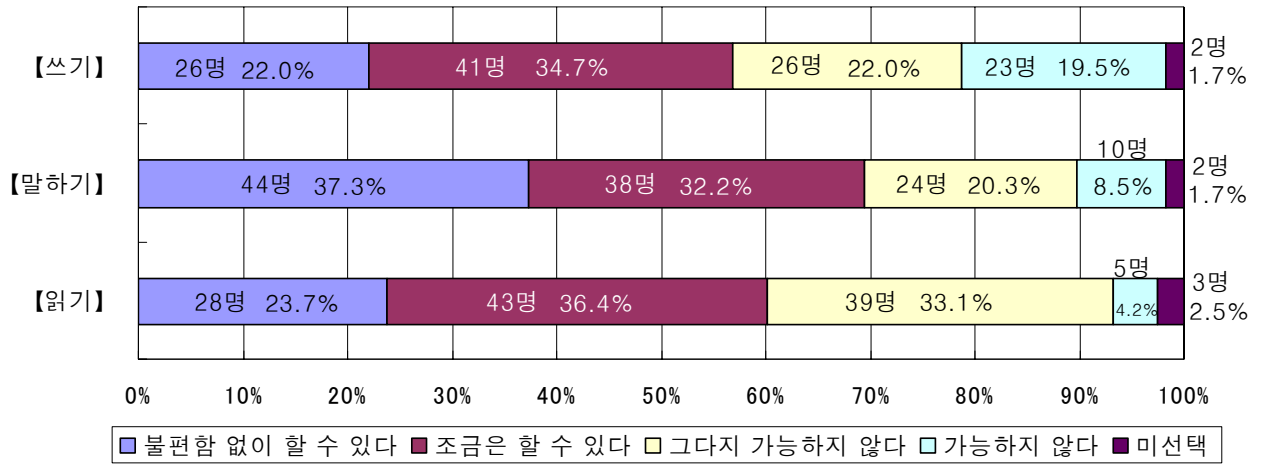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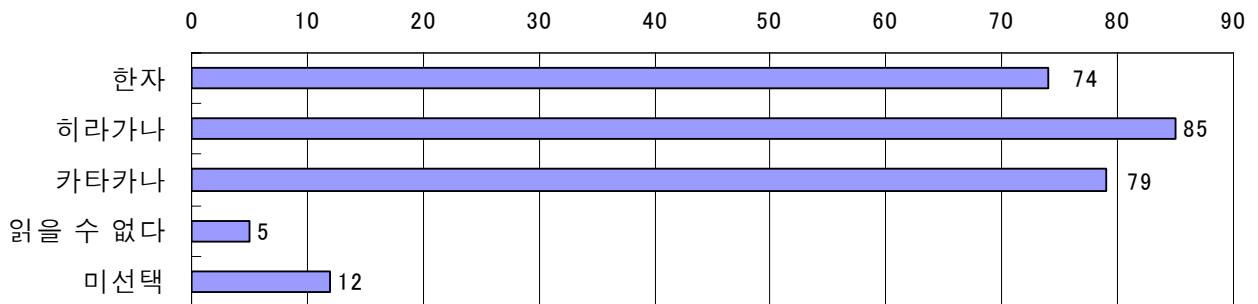
“학생” 이 가장 많은 19.5%, 이어서 “가사” 가 17.8%, “기술직 (연구원, 기술자 등)” 가 11.0%, “무직 (취업 예정 없음)” 이 9.3%, “경영, 관리직” 이 8.5%, “교원, 강사” 가 5.9%, “실업, 휴직중” 이 5.1%, “사무직 (사무원, 영업직 등)” 이 3.4%, “통역, 번역” 이 1.7%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제 2 절 언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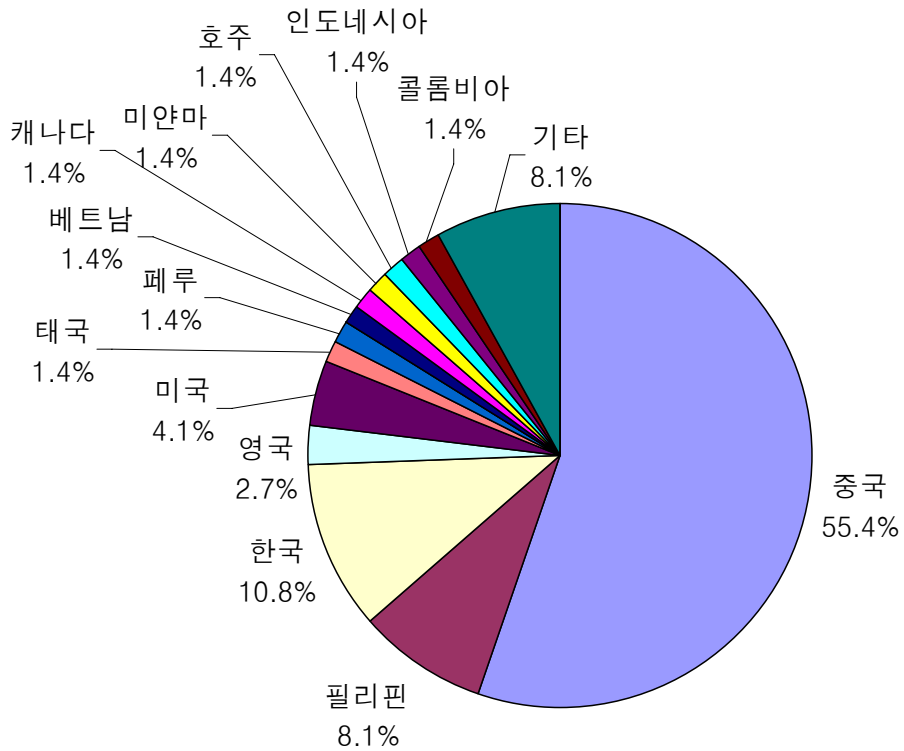
### Q8 자신의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



### 【읽을 수 있는 문자】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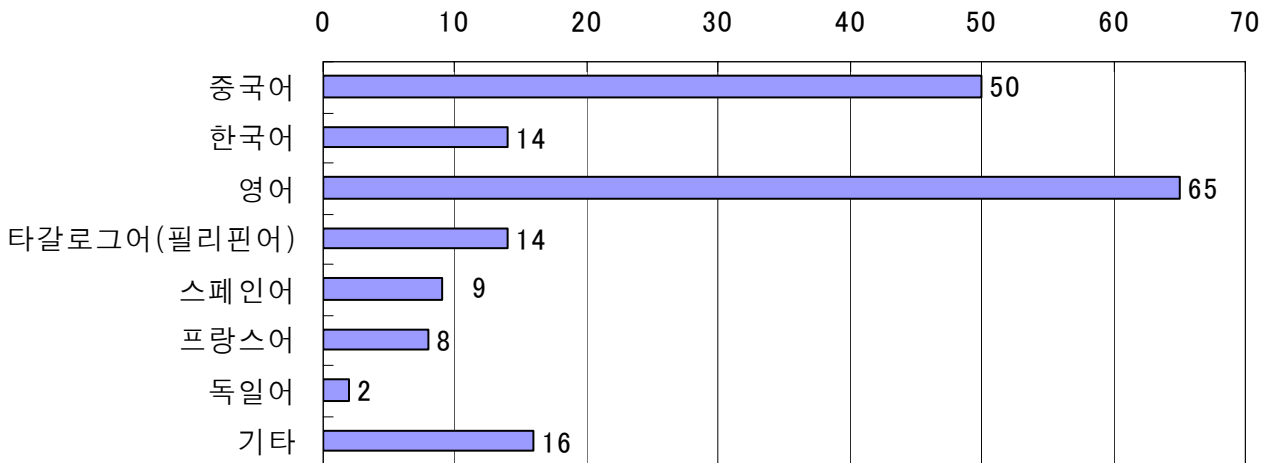


【일본어 능력】

“말하기” ⇒ “읽기” ⇒ “쓰기” 순으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다” “약간은 가능” 한 사람의 비율이 높고,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것이 “그다지 가능하지 않음” 또는 “가능하지 않음” 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85 명 (72.0%), 카타카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79 명 (66.9%),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74 명 (62.7%) 임. 단, 한자를 읽을 수 있다고 응답한 74 명 중, 41 명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전체 (118 명) 중, 중국 국적 49 명을 제외 한 69 명 중,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3 명 (47.8%) 임.

Q9 일본어 이외에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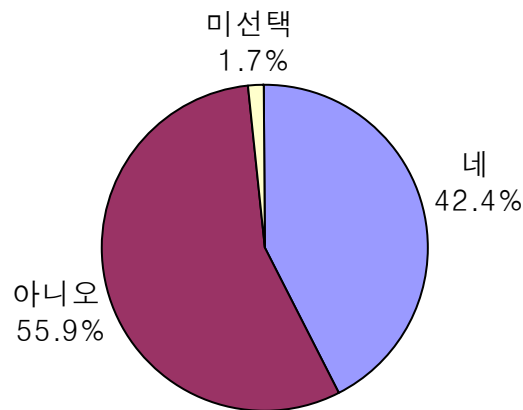
【응답자 117 명, 미 응답자 1 명】



【일상 회화가 가능한 언어】

일본어 이외에 일상 회화가 가능한 언어로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65명 (55.1%),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50명 (42.4%), “한국어”와 “필리핀어 (타갈로그어)”가 가능한 사람이 각각 14명 (11.9%)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언어가 외국인 지원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또한, “필리핀어 (타갈로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Q10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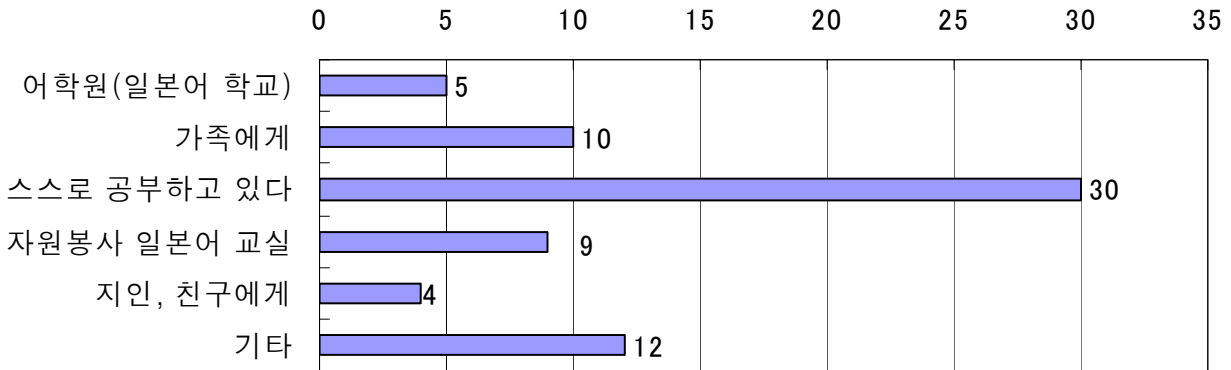
【일본어 학습】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42.4%, 배우고 있지 않은 사람이 55.9%임.

※문항 10 에서 “예” 라고 대답한 사람 (50 명)

Q10-1 어디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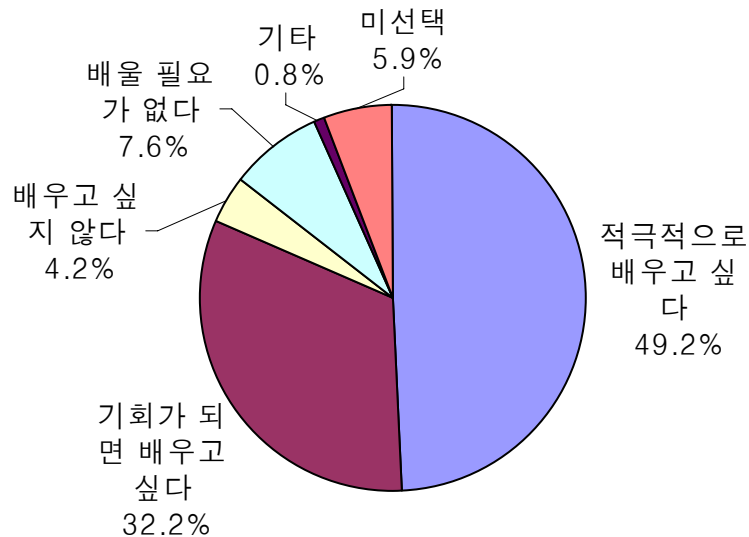
【응답자 50 명, 미 응답자 0 명】



【학습 방법】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50 명 중,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 가 30 명으로, 일본어 학습자 전체의 60.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어학원 (일본어 학교)” 에서 학습하고 있는 사람이 5 명으로 일본어 학습자 전체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Q11 이후에(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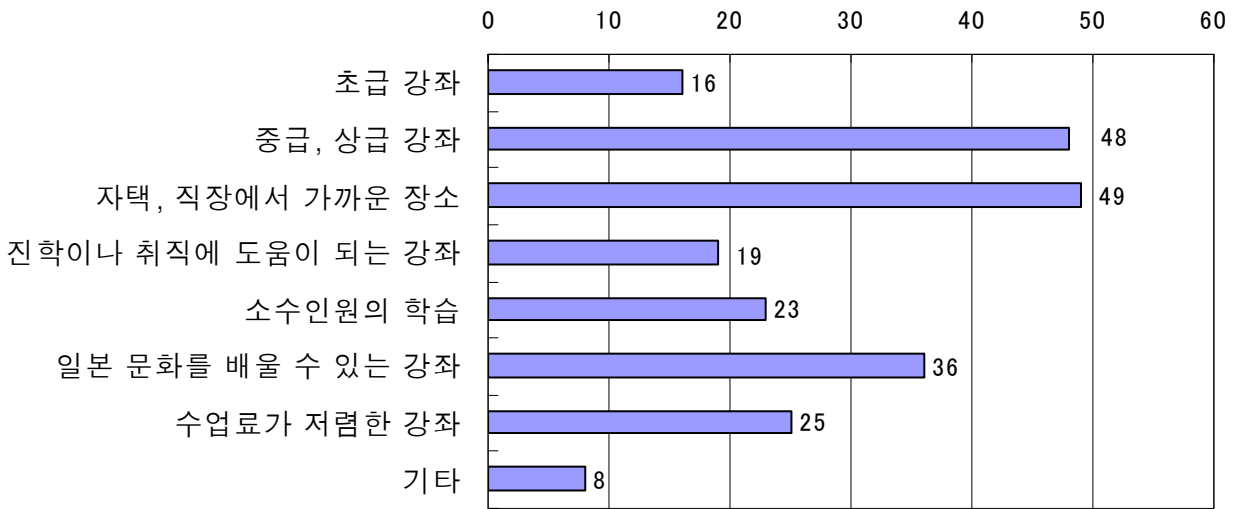
【학습 의욕】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 가 49.2%,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 가 32.2%를 차지하여 전체의 81.4%가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욕을 나타냄.

※문항 11 에서 “배우고 싶다” 라고 응답한 사람 (96 명)

Q11-1 일본어 학습 시, 희망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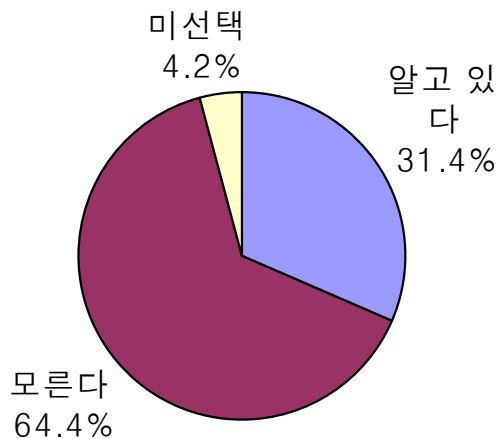
【응답자 93 명, 미 응답자 3 명】



【학습 관련 희망사항】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96 명 중, “자택, 직장에서 가까운 장소” 라고 응답한 사람이 49 명 (51.0%), “중급, 상급 강좌” 가 48 명 (50.0%), “일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 가 36 명 (37.5%), “수업료가 저렴한 강좌” 가 25 명 (26.0%) 을 차지하고 있음.

Q12 오노조시 국제교류협회가 추오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하는 일본어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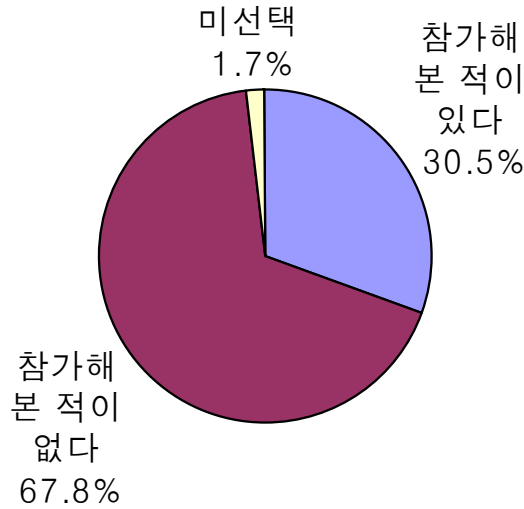


【오노조시 국제교류협회 주최의 일본어 교실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다” 가 31.4%, “모른다” 가 64.4%를 차지하고 있음.

### 제 3 절 지역 활동 참여

Q13 지역 활동 등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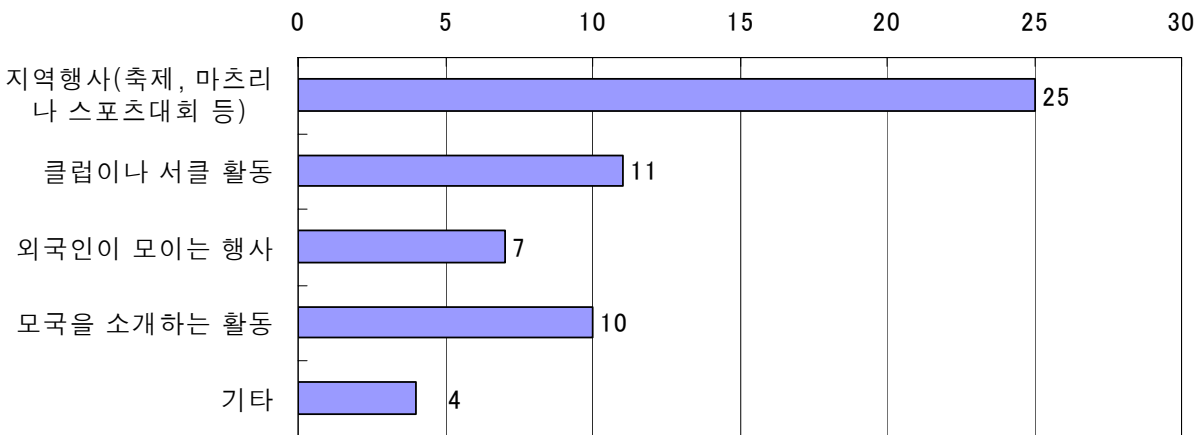
**【지역 활동】**

“참가해 본 적이 있다” 가 30.5%, “참가해 본 적이 없다” 가 67.8%를 차지하고 있음.

※문항 13 에서 “참가해 본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 (36 명)

Q13-1 어떤 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35 명, 미 응답자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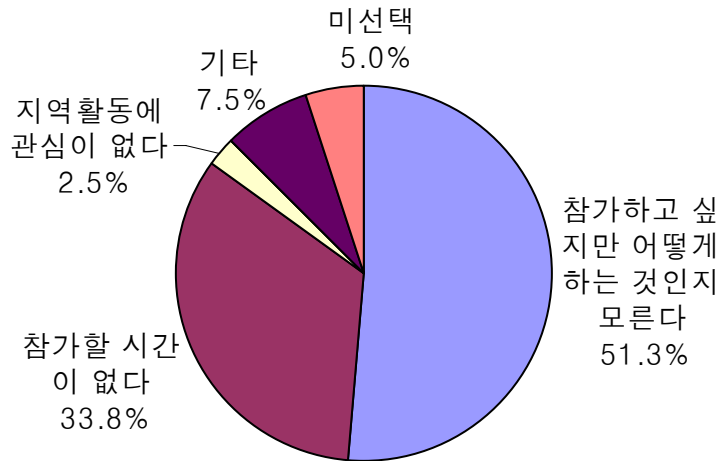
**【참가해 본 적이 있는 지역 활동】**

“축제, 마츠리나 스포츠 대회 등 지역 행사” 가 25 명으로 가장 많았음.

또한, “기타” 로는 “소방단 활동” “교회 활동” 등이 있었음.

※문항 13 에서 “참가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 (80 명)

Q13-2 지역 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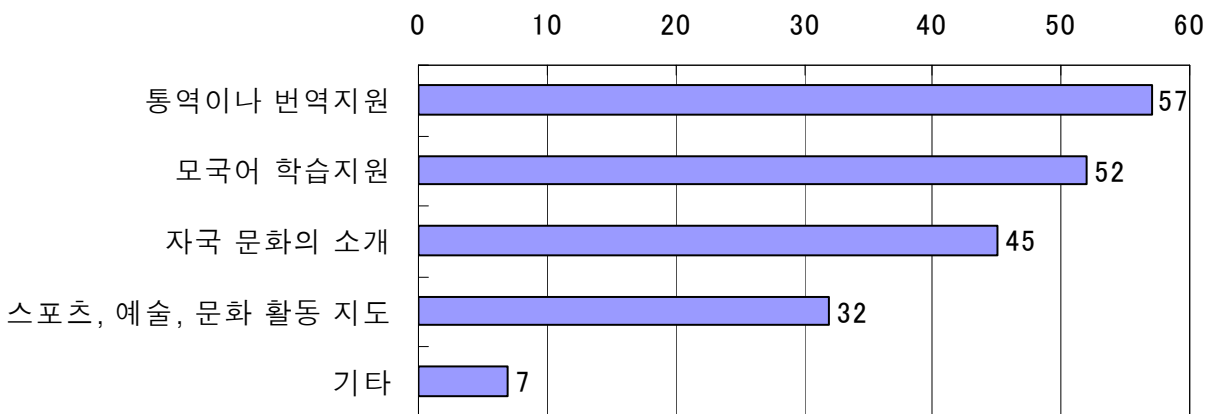
【지역 활동에 참가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참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가 51.3%로 가장 많고, 이어서 “참가 할 시간이 없다” 가 33.8%, “지역 활동에 관심이 없다” 가 2.5%를 차지 하고 있음. 또한, “기타” 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하다” “지역활동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 “오노조시에 살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등이 있었음.

Q14 이후에 자신의 능력이나 어학 등을 살려서 협력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99 명, 미 응답자 1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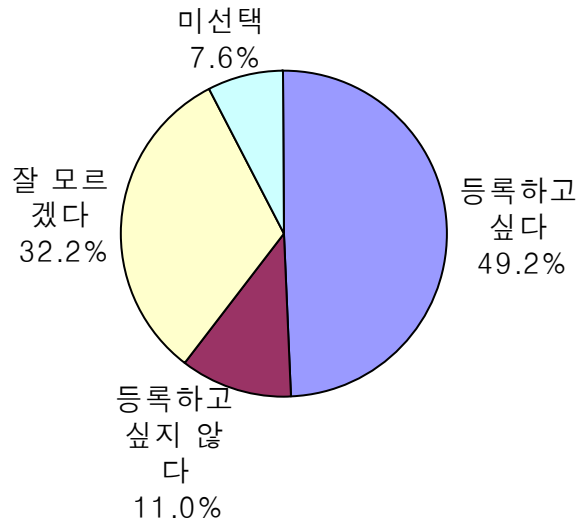


【협력해 보고 싶은 활동】

“통역이나 번역 지원” 이 57 명 (48.3%), “모국어 학습지원” 이 52 명 (44.1%), “자국 문화 소개” 가 45 명 (38.1%), “스포츠, 예술, 문화 활동 지도” 가 32 명 (27.1%) 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기타로는 “음악 이벤트 활동” “채식주의자에 관한 이벤트 활동” 이 있었음.



Q15 통역, 번역, 학교 등, 모국에 대한 소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등록제도가 있으면 등록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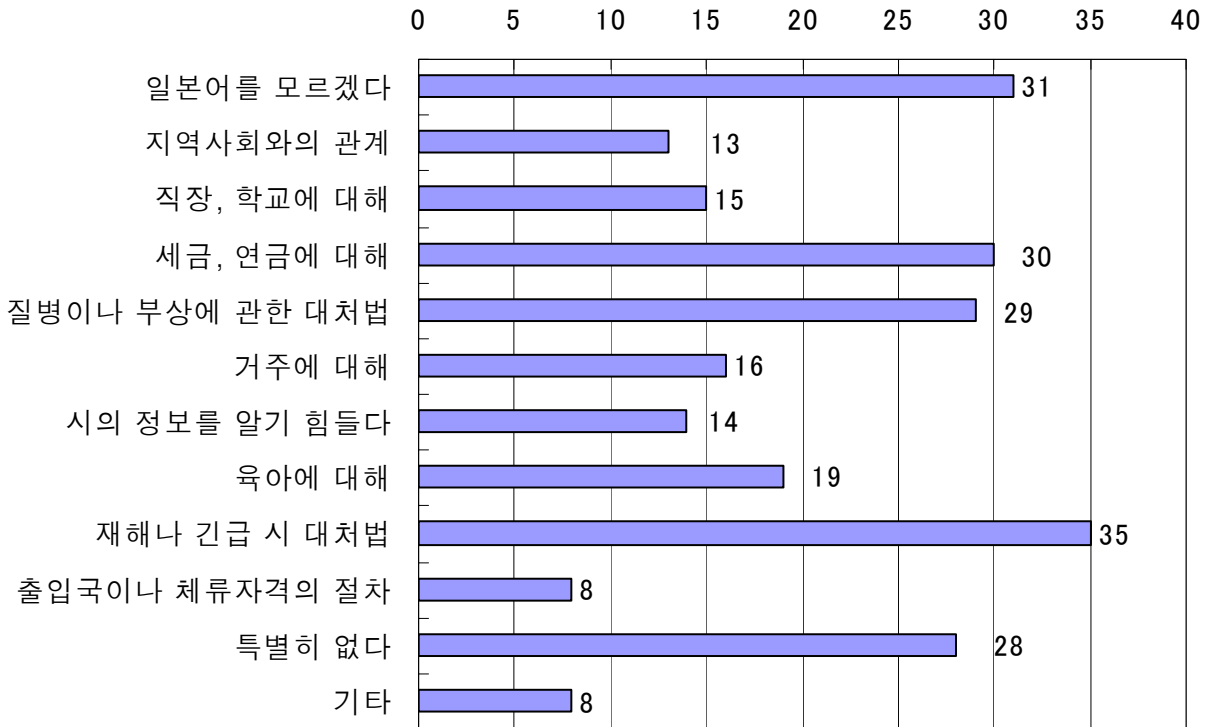


**【모국을 소개하는 등의 자원봉사 등록제도】**  
“등록 하고 싶다” 가 49.2%, “등록하고 싶지 않다” 가 11.0%, “잘 모르겠다” 가 32.2%임.

## 제 4 절 일본에서의 생활

Q16 평소 생활 중에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14 명, 미 응답자 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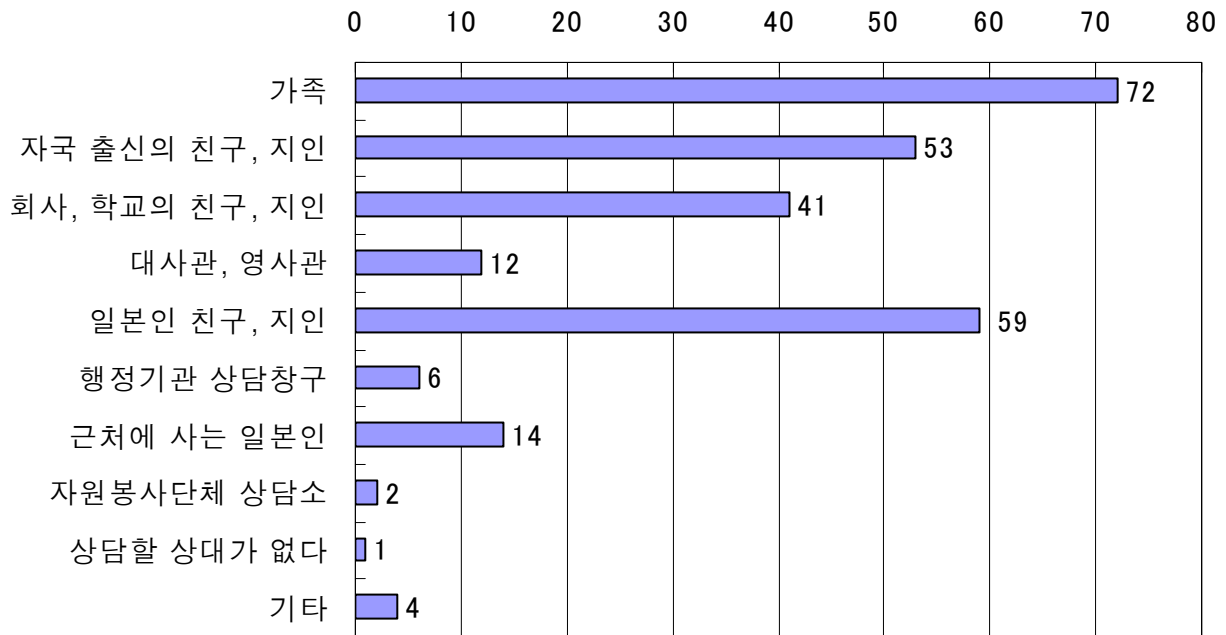
### 【생활 중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사항】

가장 많은 것은 “재해나 긴급 시 대처법” 이 35 명 (29.7%), 이어서 “일본어를 모르겠다” 가 31 명 (26.3%), “세금, 연금” 이 30 명 (25.4%),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대처법” 이 29 명 (24.6%) 순으로 나타남. “특별히 없다” 라고 응답한 28 명 (23.7%) 및 “미 응답” 4 명을 제외한 86 명 (72.9%) 은 무언가 곤란을 느끼거나 걱정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남.

또한, 기타로 “물가가 비싸다” “노력을 해도 이웃과 교류가 불가능하다” “전화나 인터넷 회선 등에 관한 수속” 이 있었음.

Q17 일본에서의 생활 중 곤란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담 할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15 명, 미 응답자 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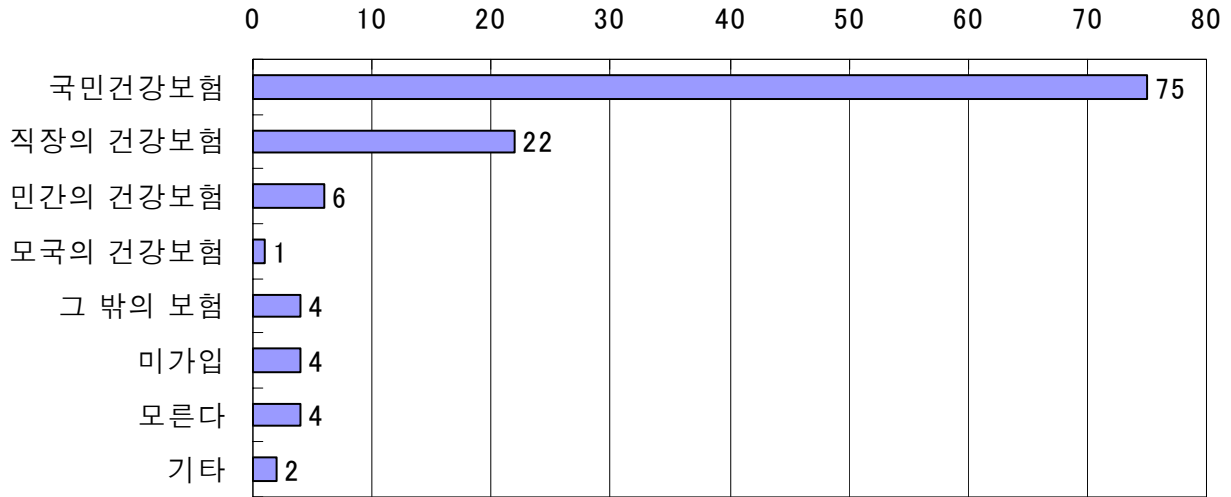
【상담 상대】

“가족” 이 가장 많은 72 명 (61.0%), 이어서 “일본인 친구, 지인” 이 59 명 (50.0%), “자국 출신의 친구, 지인” 이 53 명 (44.9%), “회사, 학교의 친구, 지인” 이 41 명 (34.7%) 순으로 나타남. “기타” 로는 “대학의 유학생지원센터” “상담할 상대가 없을 때가 있다” 가 있었음. 또한, “상담 할 상대가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 명 (0.8%) 있었음.

## 제 5 절 의 료 · 복 지

Q18 가입하고 있는 의료 보험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115 명, 미 응답자 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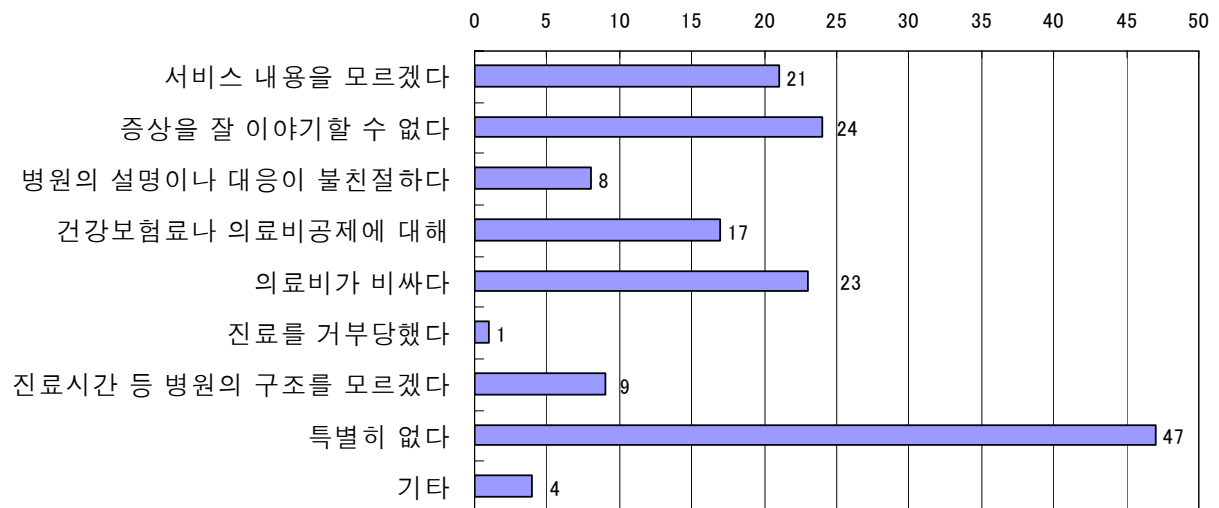


【의료 보험 종류】

공공 의료 보험 등의 건강 보험 가입자는 108 명 (91.5%), 미 가입자는 4 명 (3.4%) 을 차지하고 있음.

Q19 의료 서비스에 대해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13 명, 미 응답자 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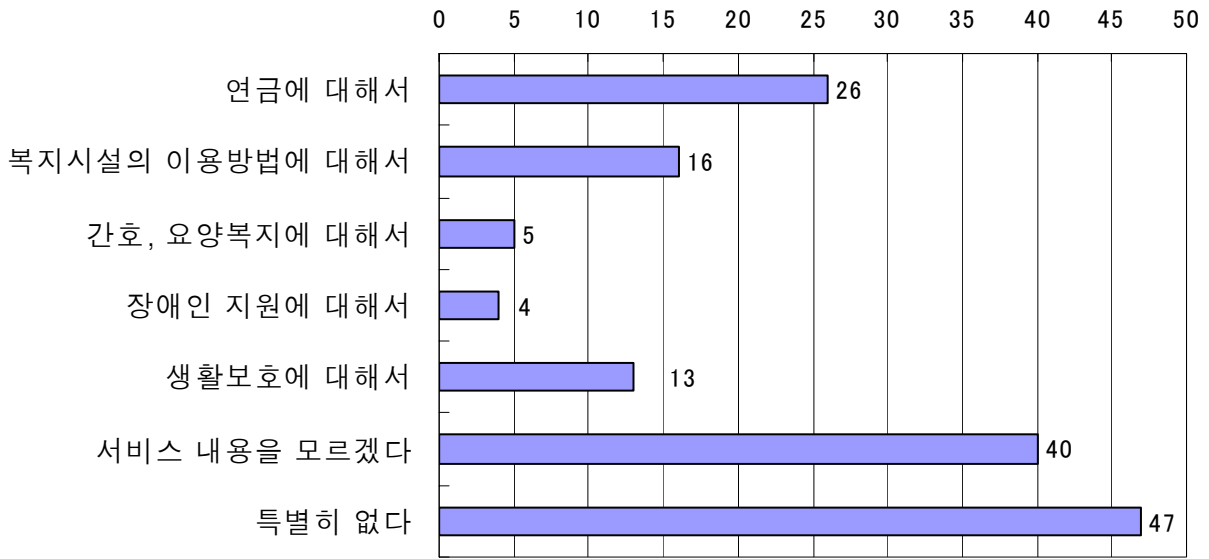


【의료 서비스에 대해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사항】

“특별히 곤란한 적은 없었다” 는 사람이 47 명 (39.8%), 반면, “증상을 잘 이야기할 수 없다” “의료비가 비싸다” “서비스 내용을 모르겠다” 가 각각 약 20%정도 있었음.

Q20 복지 서비스에 대해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12 명, 미 응답자 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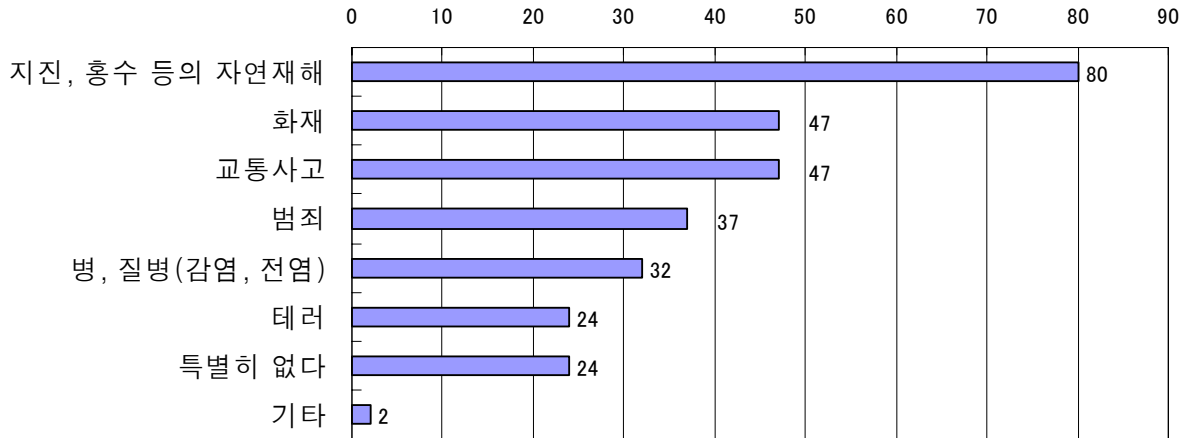
【복지 서비스에 대해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사항】

“특별히 곤란한 적은 없었다” 가 47명 (39.8%), “미 응답자” 의 6명을 제외한 65명 (55.1%) 은 특정한 이유로 곤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제 6 절 재해·긴급 시 등

Q21 어떠한 재해에 불안을 느낍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14 명, 미 응답자 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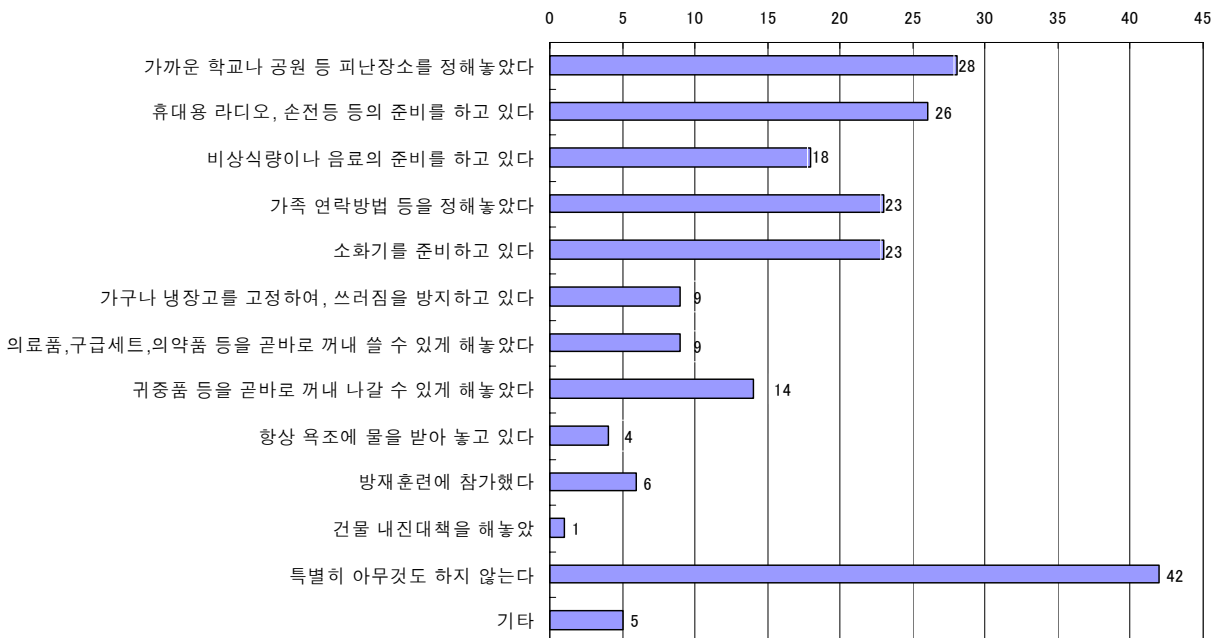


### 【불안을 느끼는 재해】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80 명 (67.8%), “화재” “교통사고”가 각각 47 명 (39.8%) 을 차지하고 있음.

Q22 평상 시, 재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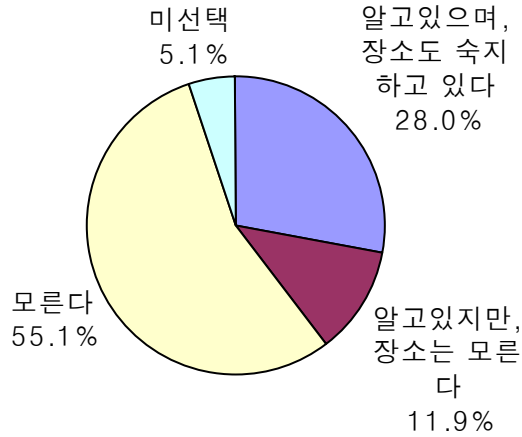
【응답자 112 명, 미 응답자 6 명】



### 【재해에 대한 준비】

42 명 (35.6%) 이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특정 재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미 응답자 제외) 은 70 명으로 전체의 59.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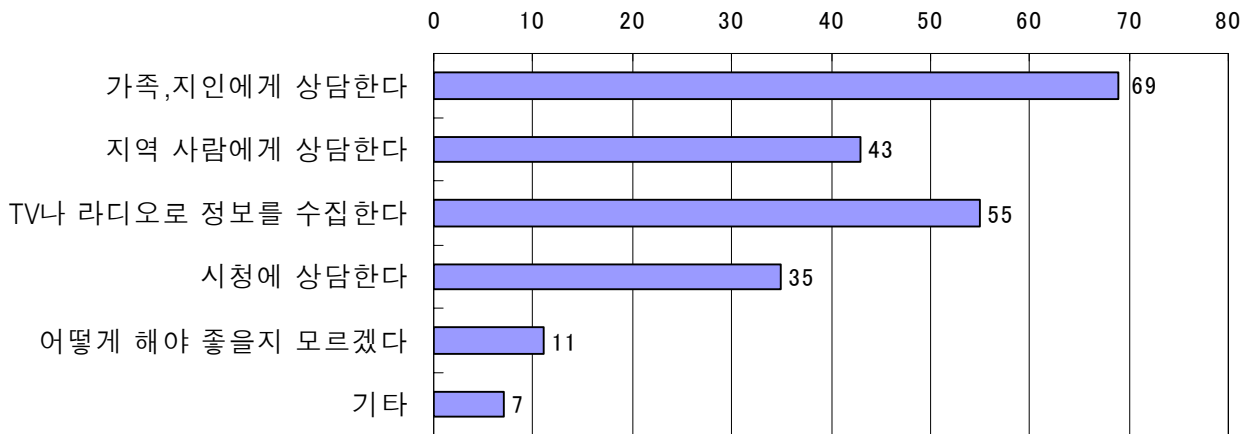
Q23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긴급 피난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피난 장소에 대한 인지】**  
 피난 장소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장소도 숙지 하고 있다” 가 28.0%, “알고 있지만 장소는 모른다” 가 11.9%, “모른다” 가 55.1%를 차지하여, 전체의 67.0%가 피난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Q24 재해 등이 일어났을 경우 먼저 무엇을 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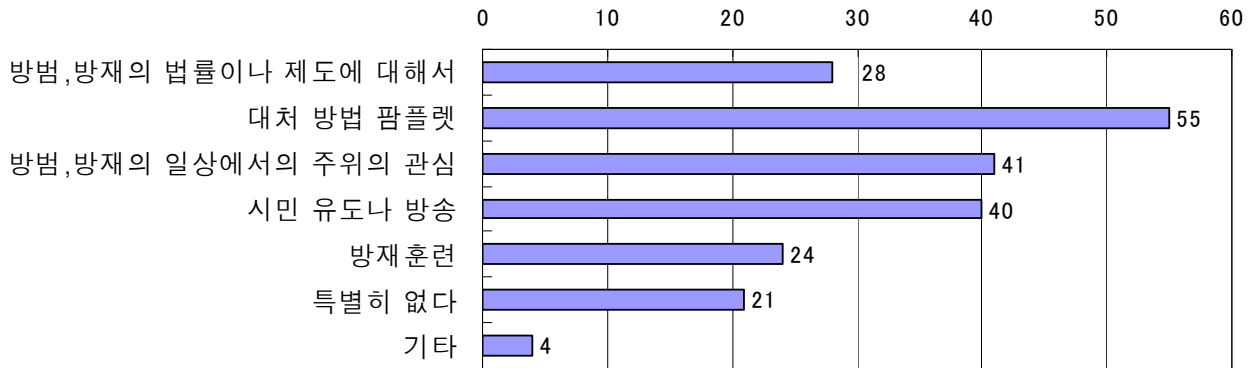
【응답자 113 명, 미 응답자 5 명】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행동】**  
 “가족, 지인에게 상담한다” “지역 사람에게 상담한다” “TV 나 라디오로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35 명 (29.7%) 은 “시청에 상담한다” 라고 응답함.  
 또한 11 명 (9.3%) 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함.

Q25 재해 시에 외국어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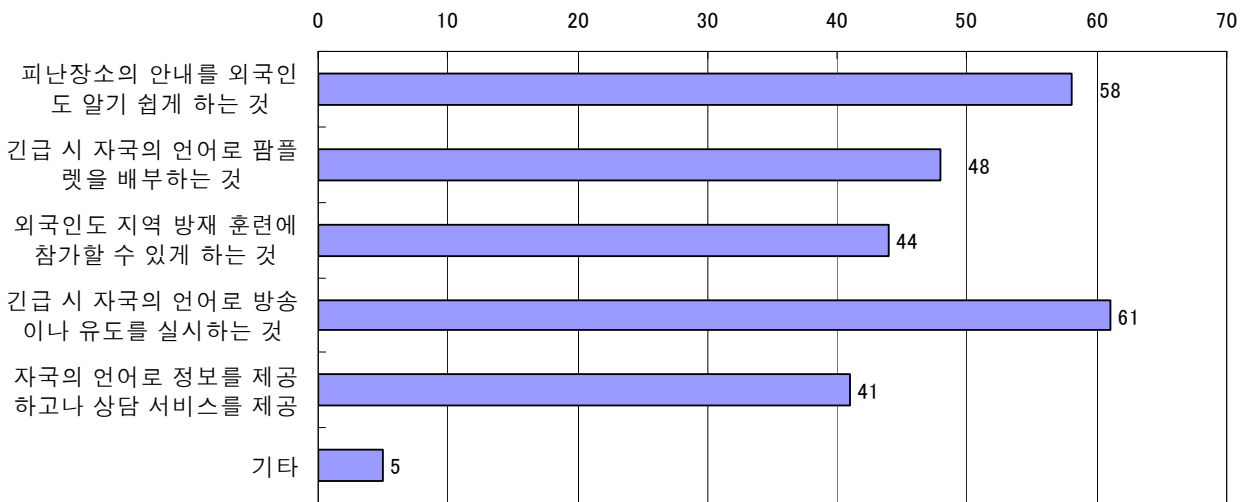
【응답자 108 명, 미 응답자 10 명】



【원하는 외국어 정보】  
 “대처 방법 팜플렛” 이 가장 많아 55 명 (46.6%) 을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방법, 방재의 일상에서의 주위의 관심” 이 41 명 (34.7%), “시민 유도나 방송” 이 40 명 (33.9%) 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외국어로 피난 장소 간판 등을 설치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음.

Q26 재해나 긴급 시 대응책으로 오노조시에 무엇을 바랍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08 명, 미 응답자 1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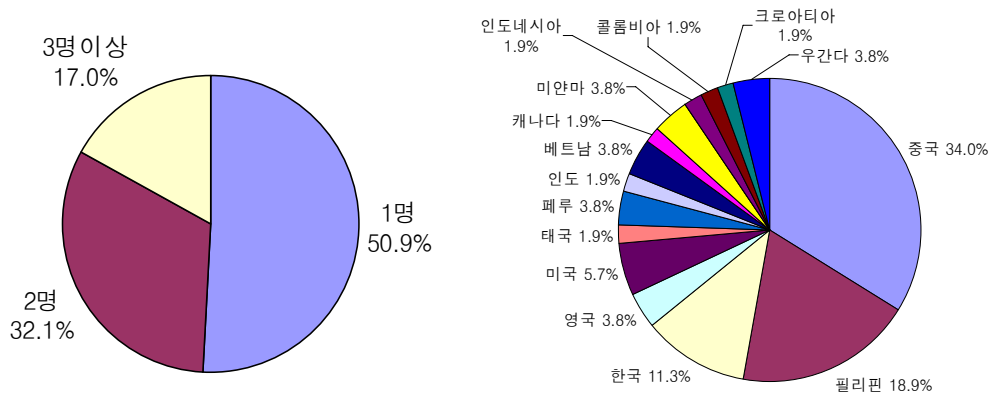
【재해 등의 대응책에 관하여 시에 바라는 점】  
 “긴급 시 자국의 언어로 방송이나 유도를 실시하는 것” 이 61 명 (51.7%), “피난장소의 안내를 외국인도 알기 쉽게 하는 것” 이 58 명 (49.2%), “긴급 시 자국의 언어로 팜플렛을 배부하는 것” 가 48 명 (40.7%), “외국인도 지역 방재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44 명 (37.3%), “자국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이 41 명 (34.7%) 으로 나타남.



## 제 7 절 육 아

※0 세~18 세의 자녀가 있는 분 (53 명)

Q27 자녀의 인원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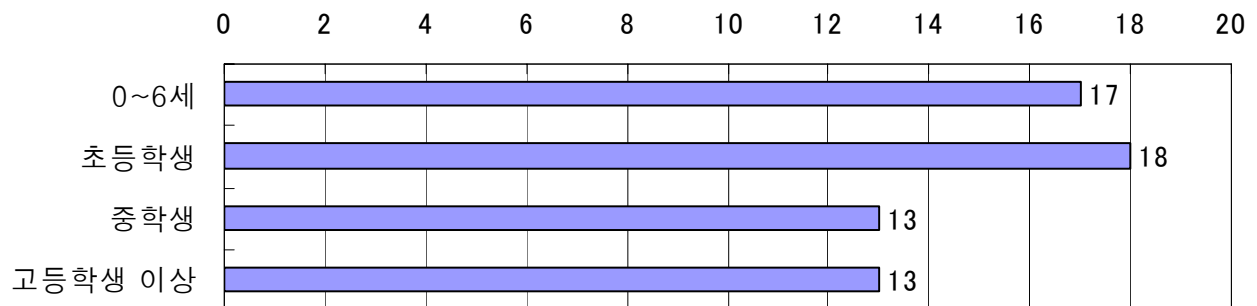


### 【자녀 수】

자녀가 있는 사람은 53 명으로 전체의 44.9%, 그 중, 자녀 “1 명” 이 27 명 (50.9%), “2 명” 이 17 명 (32.1%), “3 명 이상” 이 9 명 (17.0%) 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국적 별로 살펴 봤을 경우, “중국” 이 가장 많은 18 명 (34.0%), 이어서 “필리핀” 이 10 명 (18.9%), “한국” 이 6 명 (11.3%) 의 순으로 나타남.

Q28 자녀의 연령은?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51 명, 미 응답자 2 명】



### 【자녀 연령】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아 18 명, 이어서 “0~6 세” 가 17 명, “중학생” 과 “고등학생 이상” 이 각각 13 명을 차지하고 있음.

Q29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운 것은?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38 명, 미 응답자 1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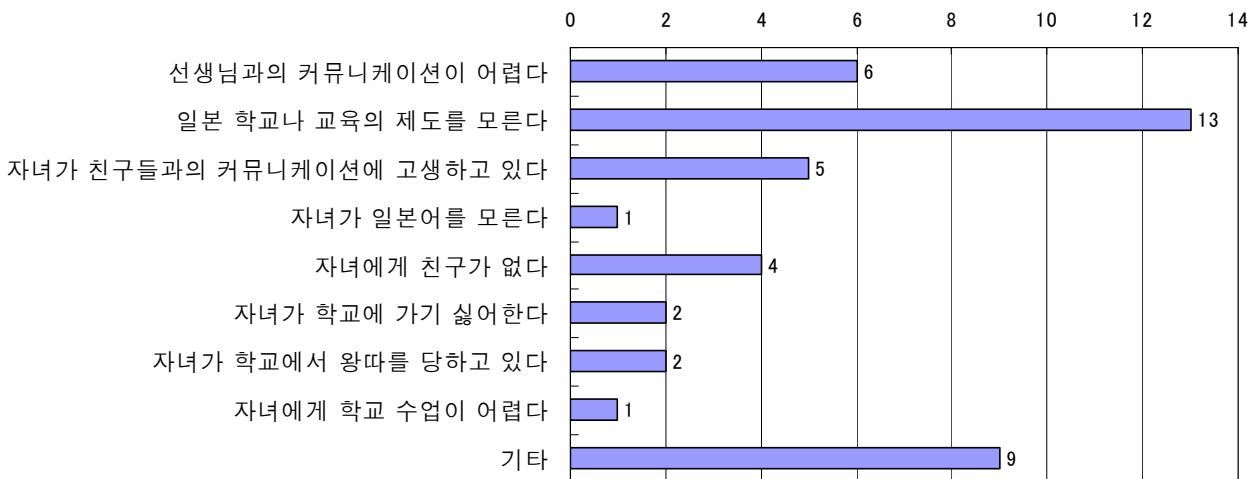


【자녀를 양육할 때 곤란하거나 어려웠던 사항】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의 절차”가 11명 (20.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비용이 비싸다”가 9명 (17.0%), “자녀를 맡아주는 곳이 없다”가 8명 (15.1%) 순으로 나타남. 또한, “상담을 할 상대가 없다” “부모 사이의 교류를 할 수 없다”라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이나 “자녀가 왕따를 당한다”라는 인권에 관련된 사항도 자녀가 있는 사람 중 10% 전후의 비율로 나타남.

Q30 학교 (보육원, 유치원 포함) 관계에서 곤란한 것은?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28 명, 미 응답자 2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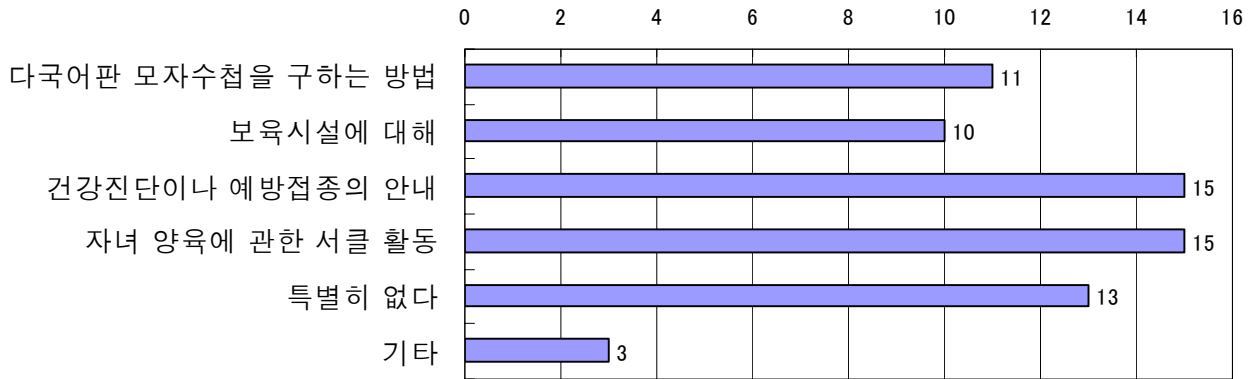


【학교 관계에서 곤란한 사항】

“일본 학교나 교육의 제도를 모른다”가 13명으로 가장 많아 자녀가 있는 사람의 24.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자녀가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고생하고 있다” “자녀에게 친구가 없다”라는 일본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곤란해 하는 사람이 있음.

Q31 아이를 키울 때 궁금한 점은?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44 명, 미 응답자 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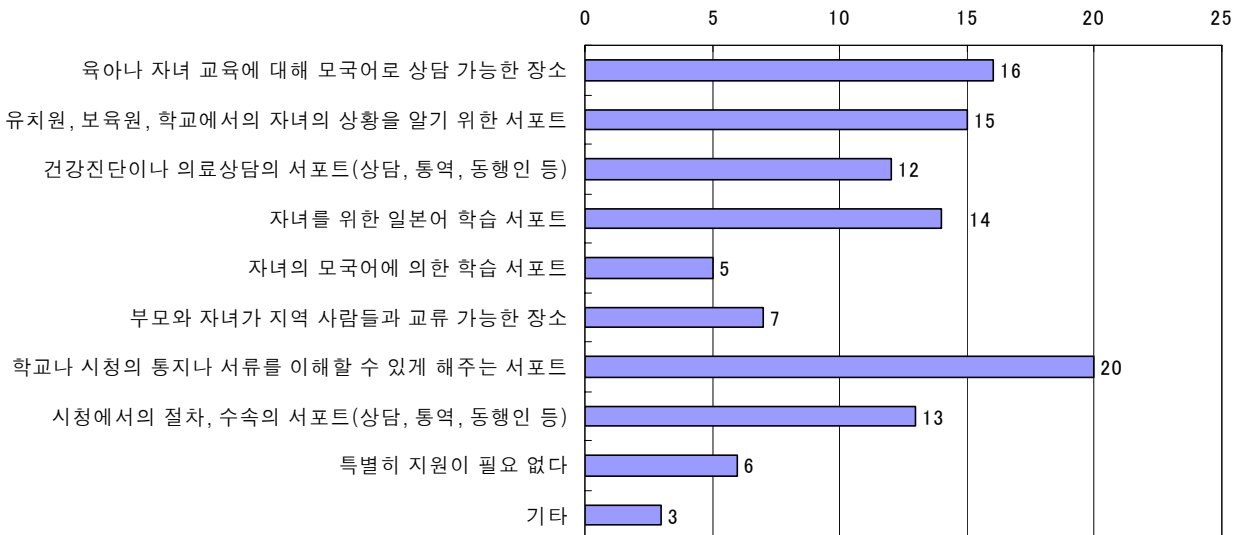


【알고 싶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자녀가 있는 사람 중 15 명 (28.3%) 이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의 안내” “자녀 양육에 관한 서클 활동” 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기타” 로는 “일본 교육제도 (학교 수속 절차나 입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음. 한편, 자녀가 있는 사람 중 13 명 (24.5%) 이 “특별히 없다” 고 응답함.

Q32 육아나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47 명, 미 응답자 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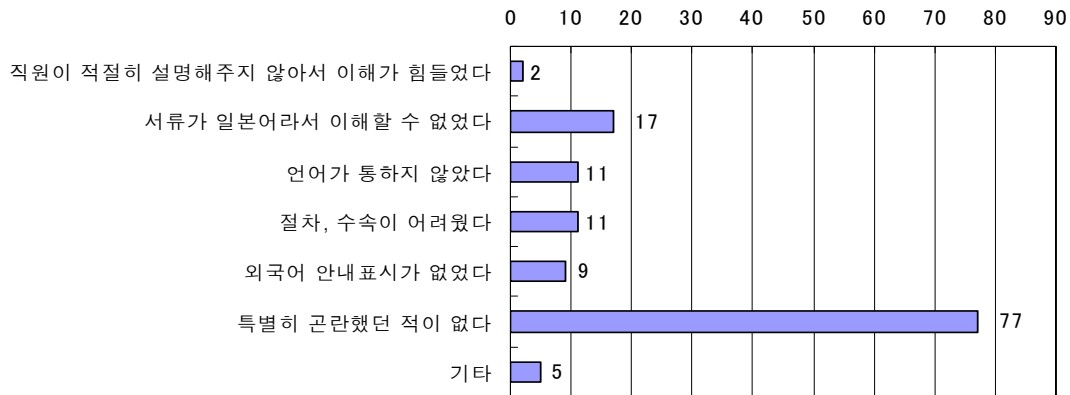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서 원하는 사항】

자녀가 있는 사람 중 20 명 (37.7%) 이 “학교나 시청의 통지나 서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서포트” 라고 응답함. 또한, “육아나 자녀 교육에 대해 모국어로 상담 가능한 장소” 가 16 명 (30.2%), “유치원, 보육원, 학교에서의 자녀 상황을 알기 위한 서포트” 가 15 명 (28.3%), “자녀를 위한 일본어 학습 서포트” 가 14 명 (26.4%) 임. “특별히 지원이 필요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6 명 (11.3%) 으로, 나머지 77.4%가 (미 응답자 6 명 제외) 특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제 8 절 오노조시청의 서비스

Q33 시청 창구에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12 명, 미 응답자 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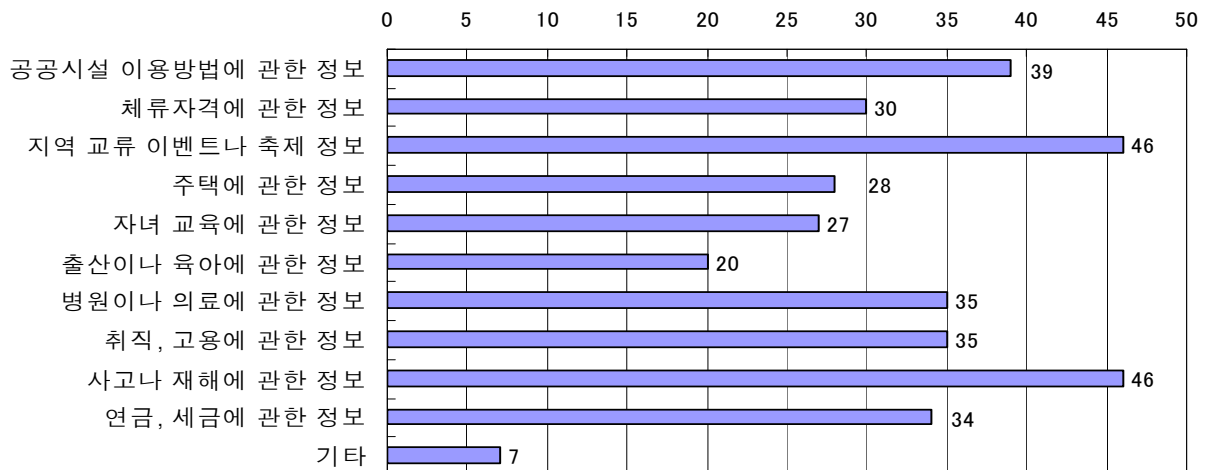


【시청 창구에서 곤란했던 사항】

77 명 (65.3%) 이 시청 창구에서 “특별히 곤란했던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함. 이것은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이 함께 수속절차를 위해 방문하거나, 시청 직원이 통역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됨. 반면, “서류가 일본어라서 이해할 수 없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직원이 적절히 설명해 주지 않아 이해가 힘들었다” 등 시청 창구에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Q34 시청에서 어떤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105 명, 미 응답자 1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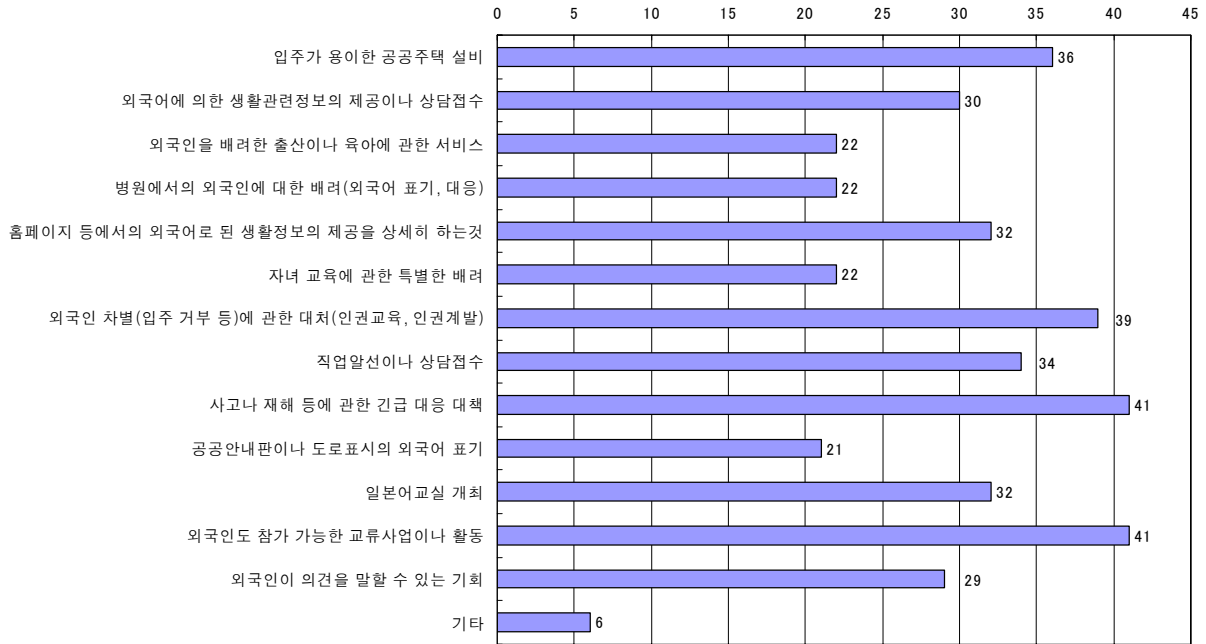


【시청의 정보 제공】

“지역 교류 이벤트나 축제 정보” 와 “사고나 재해에 관한 정보” 항목이 가장 많아, 각각 46 명 (39.0%) 을 차지하여, 지역 활동 참가에 대한 의사와 재해 등과 관련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외국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Q35 오노조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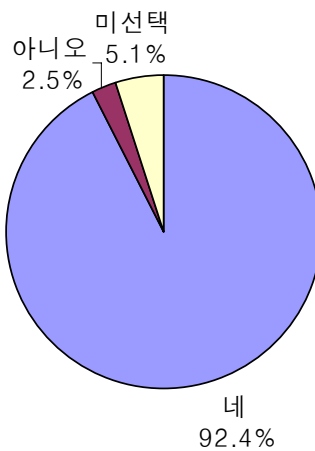
【응답자 109 명, 미 응답자 9 명】



**【오노조시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에 대해 보다 충실함을 요구하는 사항】**

“사고나 재해 등에 관한 긴급 대응 대책” 과 “외국인도 참가 가능한 교류사업이나 활동” 2 항목이 각각 41 명 (34.7%), 이어서 “외국인 차별 (입주 거부 등)에 관한 대처 (인권 교육, 인권 계발)” 이 39 명 (33.1%) 을 차지함. 또한, “기타” 로는 “홍보지에 외국인 대상 페이지로 영어 기사가 기재되었으면 좋겠다” “시청 직원 전원이 배려심을 갖고 미소로 시민을 상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음.

**Q36 오노조시는 외국 국적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오노조시의 거주 환경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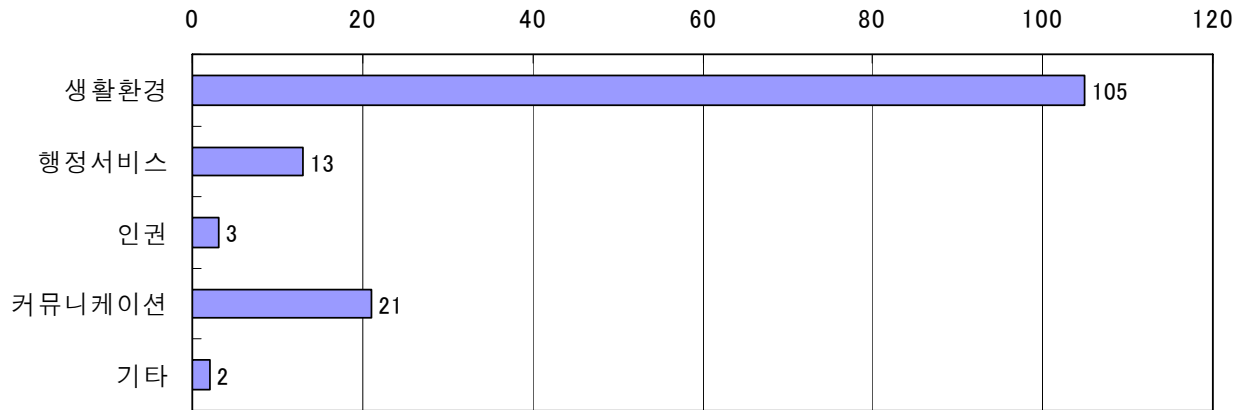
오노조시는 “살기 좋은 도시” 라고 응답한 사람이 92.4%를 차지하고 있음.

※문항 36 에서 “네” 라고 답한 사람 (109 명)

Q36-1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응답자 81 명, 미 응답자 28 명】

《살기 좋다고 생각한 이유와 관련된 분야》



《살기 좋다고 생각한 주요 이유》

분야	주요 이유	건
생활환경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13
	여러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4
	환경이 좋기 때문에	12
	교통이나 쇼핑 등이 편리하기 때문에	29
	매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2
	물가가 싸기 때문에	5
	조용하기 때문에	13
	도시가 깨끗하기 때문에	2
	일본 문화를 가르쳐 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1
	오노조시가 크지 않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9
	오노조시의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2
	근무처,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4
	오노조시가 좋기 때문에	1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
	기후가 좋기 때문에	1
	오노조 시민에게 도덕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1
	시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1
오노조시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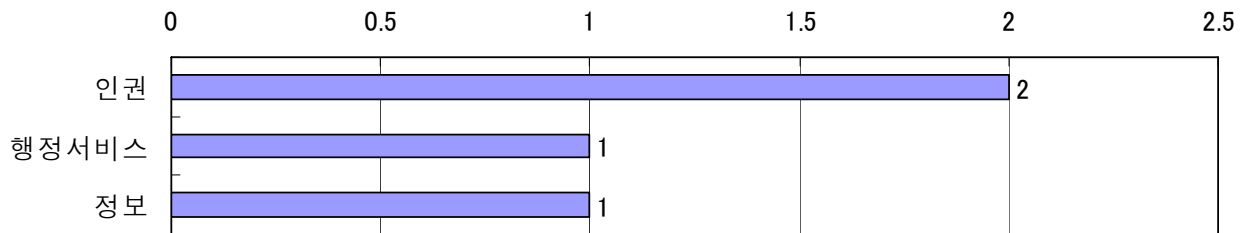
분 야	주요 이유	건
행정서비스	오노조시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
	행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1
	오노조시 직원 가운데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1
	오노조시 직원이 친절하기 때문에	4
	오노조시 직원이 신속하게 응대해 주기 때문에	2
	외국어 간판이 있기 때문에	1
	일본인과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인 권	차별이 없기 때문에	2
	인권교육, 계발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1
	외국인 교류의 기회가 있고, 고민 상담 할 상대를 사귄 수 있기 때문에	1
	오노조 시민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18
	오노조 시민들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
기 타	오노조시 이외의 곳을 모르기 때문에	2

※문항 36 에서 “아니오” 라고 답한 사람 (3 명)

Q36-2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응답자 3 명, 미 응답자 0 명】

《살기 힘들다고 생각한 이유와 관련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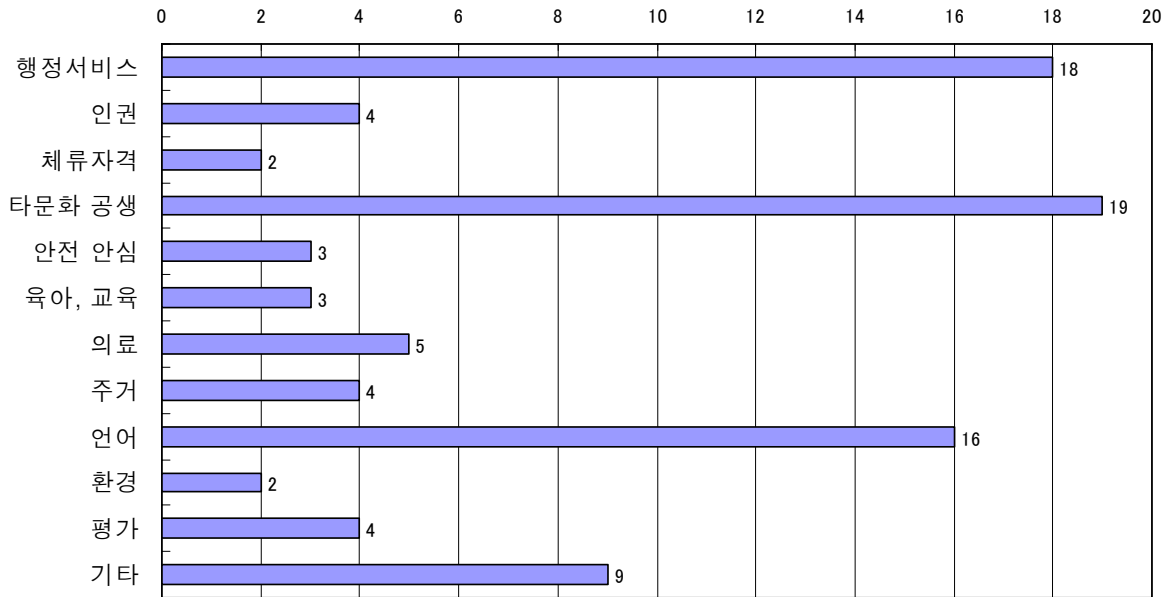


《살기 힘들다고 생각한 주요한 이유》

분 야	주요한 이유	건
인 권	차별이 있기 때문에	2
행정서비스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1
정 보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1

Q37 여러분 자신이 살기 편한 시가 되기 위해 오노조시청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노조시청에 기대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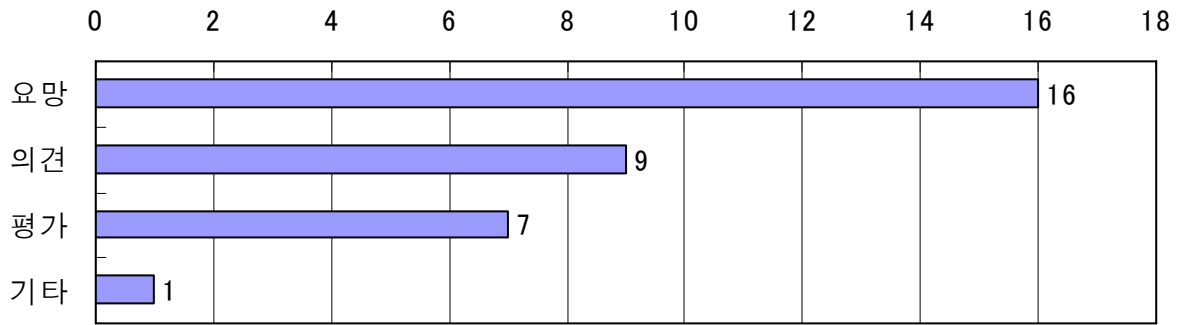
《오노조시청에 기대하는 사항》

분야	주요한 이유	건
행정서비스	외국어 정보 제공 (법률, 교육, 지역, 주택, 병원, 보육시설 등)	14
	외국어 안내나 지원	2
	외국인 상담 창구 설치	1
	시영 주택 입주 우선순위에 신혼부부를 추가하였으면 좋겠다	1
인권	외국인 입주 거부 등의 외국인 차별 사항에 대한 대처	2
	인권교육, 계발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1
	외국인 취직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1
체류자격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다문화 공생	일본인과 외국인의 교류가 가능한 장이나 외국인이 참여하여 기획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11
	일본 문화나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	2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1
	외국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의 제공	1
	다문화 가정과 공생할 수 있는 의식 향상	1
	국제, 문화 페스티벌 개최	1
	지역 주민의 다국적 시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좌 개최 (국제 이해, 국제 협력 등)	1
	채식주의자에 대한 배려 (학교, 레스토랑 등)	1
안전 안심	외국인을 위한 긴급 대피 경로도 배포	1
	긴급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대응할 것	1
	외국인을 위한 방재훈련 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것	1



분 야	주요한 이유	건
육아, 교육	보육시설 관련 사항의 충실한 대응 및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	1
	교육비를 저렴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1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의 충실한 이행	1
의 료	미취학 자녀의 의료비 완전 무료화	2
	야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1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병원의 설치	1
	병원의 문진표 등 서류의 다언어화	1
주 거	외국인 입주에 관한 지원, 서포트	3
	시영 주택의 증축	1
언 어	서류나 자료, 메뉴 등의 번역 서비스	4
	피난처 등 공공 시설의 외국어 병기 간판의 설치	3
	일본어 교실의 개최 횟수 및 개최 장소 증설	3
	일본어 교실 개최	2
	외국어가 가능한 인재 양성이나 고용	2
	현재 일본어 교실의 질 개선	1
	금융 기관 등 각 수속 관련 통역 서비스	1
환 경	환경 보전	2
평 가	일본의 법률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	1
	오노조시의 경우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생활환경도 매우 양호하며 육아에 있어서도 최적의 장소이다	1
	오노조시가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1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지만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좋은 도시이다	1

Q38 의견, 희망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요망】

분 야	주요 이유	건
인 권	외국인 취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조차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
언 어	오노조시 국제교류협회가 개최하는 일본어 강좌의 경우, 강사가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몇 주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거나 간단한 내용 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1년간 수업을 받아도 일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였으면 좋겠다.	2
	집 근처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본어 교실을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1
	외국인에게 중요한 사항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본의 물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니시테츠 전차 등의 정차 역의 안내 등 공공 교통 기관의 안내를 영어로라도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1
정보 제공	영주권 수속 방법이나 연금 제도, 의료 보험 제도, 세금 제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1
안전 안심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 재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본 국적 주민과 동일하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정보 제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2
환 경	공원이 보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1
생 활	외국어 잡지 등을 도서관에 비치해주었으면 좋겠다.	1
	연령과 관계 없이 보다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오노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육아, 교육	자녀가 많으면 고액의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아동수당 금액을 늘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의식조사	스페인어 조사서가 없었기 때문에 응답에 곤란을 겪었다.	1
다문화 공생	일본인과 외국인 상호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호 교류의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2
	다도나 기모노 등의 일본 문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1

【 의 견 】

분 야	주요 이유	건
인 권	일본인이 정치적 관점에 있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본인과 외국인이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
	외국인에 대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1
	일본인 자녀의 경우, 타 문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일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왕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1
행정서비스	행정 직원의 영어 수준이 너무 낮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1
환 경	정원 등에 사용하지 않는 초목을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
생 활	타 시와 비교해서 수도 요금이나 보육료 등이 비싸다.	1
	오노조시는 친절한 사람들과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
	오노조 시민들이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생활에 그렇게까지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다.	1
의식조사	일본어도 영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1

【 평 가 】

분 야	주요 이유	건
행정서비스	오노조시청의 종합 안내가 매우 친절했다.	1
	향후에도 오노조시에 신세를 질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노조시나 오노조시 직원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하고 있다.	1
생 활	오노조시가 매우 좋다.	1
	모두 만족하고 있다.	1
의식조사	외국인의 의견을 귀중하게 여기기 위한 이러한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2
	외국인의 의식 조사는 외국 국적 시민과의 관계를 좋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전국에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 기 타 】

분 야	주요 이유	건
기 타	외국인이 일본 지역사회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이나 바램은 없다.	1

## 제 3 장 향후 과제

### I 언어에 대하여

- 외국인의 약 40%가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번역된 자료나 신청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어 이외의, 일상 회화가 가능한 주 언어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라는 사실에서, 자료나 신청서 등을 여러 언어로 번역할 경우, 적어도 이 3 가지 언어로 번역된 것을 준비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어 학습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과반수가 “자택, 직장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개최하는 강좌나 “중급, 상급 강좌”를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오노조시청 국제교류협회가 중앙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어 교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4.4%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일본어 교실의 홍보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유 기술란에서, 오노조시 국제교류협회의 일본어 강좌 내용이 보다 충실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급, 상급 강좌”를 희망한 사람이 많았으나, 상급 강좌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 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오노조시 국제교류협회와의 협의가 필요함.

### II 지역 활동 참여에 대하여

- 지역 활동에 참여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67.8%을 차지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참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1.3%에 달하고 있는 사실에서,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 상태에 관해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협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통역이나 번역 지원” “모국어의 학습 지원” “자국의 문화 소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49.2%가 이와 같은 활동의 자원봉사 등록제가 있다면 등록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오노조 시민의 힘을 살린 국제화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III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 일상 생활에 있어 곤란을 겪었거나 걱정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 및 “미 응답” 외 72.9%의 사람이 무언가 곤란을 겪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지원 문제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 IV 의료·복지에 대하여

-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에 관한 문항에서 “특별히 곤란한 적은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7.8%, “복지 서비스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 제도의 홍보 및 정보 제공 상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V 재해·긴급 시 등에 대하여

-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67.8%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35.6%, 긴급 피난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67.0%에 달하고 있음. 또한, 재해나 긴급 시 등의 대응책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된 팜플렛을 통해 피난장소나 대처 방법의 홍보를 오노조시에 기대하고 있는 의견이 많아, 외국인이 재해, 긴급 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도 지역 방재훈련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재 훈련이나 외국인도 방재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 시 일본어 외의 방송이나 유도를 실시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 언어로 방송, 유도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VI 육아에 관하여

-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 안내, 또는 육아 서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외국인에게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함.
- 일본 교육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학교나 시청 서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응책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육아나 교육과 관련하여, 모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장소를 희망한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근린 지역이나 오노조시 국제교류협회, NPO 단체 등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VII 오노조시청의 지원에 대하여

- “시청 창구에서 특별히 곤란했던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6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어가 가능한 인솔자와 방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한편, “서류가 일본어라서 이해할 수 없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4.4%,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수속이 어려웠다” 가 각각 9.3%씩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입장에 서서 창구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 직원의 외국어 능력 수준이 낮다는 의견도 언급되어, 국제화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이 필요함.
- 지역 교류 이벤트나 축제, 사고, 재해, 공공시설 이용방법 등에 관해 외국인이 여러 언어로 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행정 서비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입주 거부 등 외국인 차별과 관련해 인권교육이나 인권계발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한 사람이 33.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권교육, 인권계발을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오노조시 외국 국적 시민 의식조사 보고서

2012년 9월

발행 : 오노조시교육위원회 문화학습과

〒816-8510

오조노시 아케보노마치 2-2-1

TEL 092-580-1812

FAX 092-501-2270